

고흥군, '우주테마파크 조성' 보고회

우주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다양한 연령층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 구축

고흥군은 최근 군청 휴양홀에서 각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1차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주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고흥군에 위치한 우주항공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우주항공 관련 문화·관광·교육·휴양 융복합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고흥군이 지난해 11월 착수한 연구용역이다.

용역을 수행 중인 ㈜이가ACM건축사사무소 및 ㈜모델스는 우주

를 주제로 하는 스토리 테마를 첨단 어트랙션을 이용, 기존 테마파크와의 차별화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이가ACM건축사사무소의 우주테마파크 도입 당위성 및 도입시설, 후보지 평가 및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에 이어 각 부서장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우주테마파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송기근 군수는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하여 과학문화·관광거점을



구축하는 첫 단추를 꿴는 단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고흥군의 우주항공 중심도시 이미지 연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을 포괄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관계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추후적인 용역보고회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별교꼬막 안심하고 드세요"

현재까지 패류독소 한번도 검출된 적 없는 청정해역

보성군은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주산지로, 별교 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전국 1호로 예로부터 임금 진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여자만의 깊고 차진 갯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에서 잡은 꼬막보다도 육질이 쫄깃하고 맛이 좋기로 이름나 있다.

보성 별교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패류 독소가 한번도 검출된 적이 없을 정도로 청정해역이라고 명성을 날리고 있다.

별교는 해변이 깊은 만으로 형성되어 바닷물이 천천히 빠지고 드는 병목 모양의 만을 형성하여 미세 갯벌이 숨쉬고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는 건강식 꼬막을 섭취 할 수 있는 것이다.

꼬막의 종류는 참꼬막, 새꼬막, 피꼬막(피조개) 세가지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먹는 새꼬막은 쫄깃하고, 참꼬막은 고급 꼬막으로 씹어 먹기 좋다. 살이 붉게 보여 이름 붙여진 '피꼬막(피조개)'은 크기가 일반 꼬막의 5배 가량 큰 것이 특징이다.

보성군에서는 2019년 통계청 기준 새꼬막 양식생산 155억원으로 보성, 별교 일대 꼬막양식장을 집중적으로 꼬막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참꼬막



새꼬막



피꼬막(피조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민들에게도 청정 갯벌을 관리,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어촌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따라 어촌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유입인구 확대 기대를 하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올해 위생등급제 인증 음식점 14곳 추가

인증확대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효과 특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나온 평가원이 위생등급제 신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한 방향 식사, 테이블 간격 제한 등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64개 항목의 엄격한 평가를 통과해야지만 등급이 부여되는 위생등급제가 주목받고 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2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신청 받

아 전문 위생관리 기관이 신청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수준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알려주는 등 현장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한 결과 올해 14개 업소가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생등급제로 지정될 경우 시 홈페이지와 여수 맛, 배달 앱(배달의 민족 등)에 홍보한다. 또 식품진흥기금 용자 우선 알선,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위생용품(쓰레기봉투 등)과 등급 표지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동참 업소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우

리시의 음식점 위생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업소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27개소라고 밝혔다.

디오션 매그놀리아, 본죽국동점, 다북전통죽, 백수초밥, 샌드그립여수점, 빈스앤베리스 2개점, 이마트 내 4개점(난카츠난우동, 성수동육칼국수, 육해밥, 이베이커리), 교촌치킨 웅천점, 지리산 순한한우명품관, 닭악은마을 여천점, 연안식당, 여수밤상갈치야, 이디야커피 4개점 등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담양군 "고품질 쌀 안정생산 위해 종자소독은 필수"

담양군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담양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범씨 파종 전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범씨 소독은 종자로 전염되는 카다리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깨씨무늬병, 벼잎선충, 벼이삭선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묘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고품질 쌀 생산의 첫걸

음이다.

범씨소독은 일반소독(약제침지소독)과 친환경소독(온탕소독, 온탕소독+석회유황) 2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일반소독은 범씨소독 적용약제를 선택해 종자량의 2배 물량에 약제를 희석한다.

그 후, 물이 잘 통하는 망사자루에 종자 10kg 단위로 범씨발아기에 세워서 넣고, 물 온도 30℃에서

약제별 소독시간을 준수하여 24~48시간 소독한다.

친환경소독은 온탕소독기에 종자량의 10배정도 물을 넣고, 온탕소독(60℃, 10분)을 실시한 후 냉수에 10분 이상 종자를 담그면 96% 정도 카다리병 방제효과가 있다.

특히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온탕소독+석회유황 체계처리는 온탕소독한 범씨를 석

회유황(22%, 50배액)을 희석한 물 온도 30℃에서 24~48시간 담귀 소독하고 깨끗한 물로 세척하면 카다리병 방제효과가 99%로 온탕소독보다 효과가 더 높다.

소독 후 범씨 담그기(침종)는 30℃에서 3~4일(15℃에서 6~7일) 동안 실시하고, 산소발생기를 사용하거나 1일 4~5회 저어주어 범씨 부패를 방지해 주어야 하며 고온·단기간보다는 저온에서 수분을 천천히 흡수시키는 것이 균일한 발아에 도움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순천시, 중국 북경사무소 설치 MOU

순천시는 최근 순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중국 북경사무소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순천시 북경사무소 설치 추진을 위해 순천시와 순천상공회의소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우선 순천상공회의소는 북경사무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 개소를 위한 협력을 하고 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은 순천시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순천시 북경사무소는 중국 북경의 중관춘과의 창업경제 분야 협력을 비롯해 중국 도시와의 경제, 문화,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교류 확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북경의 중관춘은 중국 정부의 과학교육부흥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실리콘 밸리 지역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Yeongam-gun

Yeongam-gun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 일 범 상 한 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